

# 교육·행정 전문성 통한 연대 시너지

유성동·황호진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교육발전 '정책·혁신 연대' 선언... 교육감직 신뢰 회복 강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유성동·황호진 예비후보가 정책 중심 선거와 교육행정 혁신을 위한 연대를 공식 선언했다. 두 예비후보는 2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정책·혁신 연대'를 선언하고, 학생 중심의 교육정책과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을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학생과 교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정책 리더십과 혁신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정치적 세력화와 도덕성 논란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 등을 언급하며 "교육감직은 오직 학생의 성장과 학교 지원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이번 연대를 통해 교육정책의 현장 적합성과 수용성, 효과성, 실현 가능성을 상호 검증하고 공동으로 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기초·기본학력 신장 △인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유성동(사진 오른쪽)·황호진 예비후보가 정책 중심 선거와 교육행정 혁신을 위한 연대를 공식 선언했다.

특히 △기초·기본학력 신장 △인문 육성 및 예술교육 △행정 혁신과 교원 업무 경감 △청렴한 조직문화 △학교

체육 활성화 △학생 건강 분야에 대해 정책 기조를 함께하기로 했다.

또 다른 예비후보들이 제시하는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공동 검증할 예정이다. 양 후보는 "교육감은 품행과 전문성, 혁신성을 갖춘 교육정책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정책 중심의 선거 구도를 만들고, 교육감직에 대한 신뢰 회복을 강조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선민 기자

# 전북형 책임교육 '청사진'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정책자료집 첫 발간 출생부터 대학진학까지 맞춤형 책임교육 정책 담아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전북교육의 미래 비전을 담은 정책자료집을 예비후보 가운데 처음으로 발간했다.

천 예비후보는 최근 정책자료집 '출생부터 대학진학까지 맞춤형 책임교육 실현 10대 정책'을 펴내고, 전북형 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전북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제작됐으며, 지역 소멸과 학력 격차, 인공지능(AI) 시대 전환이라는 교육 현안에 대응하는 내용을 담았다.

천 예비후보는 "전북교육은 지금 지역 소멸과 학력 격차 AI 시대 전환이라는 삼중 과제 앞에 서 있다"며 "교육이 지역을 살리고 아이들이 미래를 열어가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5년간 교사로, 20년간 수업 연구 교수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

으로 도내 500여개 학교를 직접 찾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총 20쪽 분량의 자료집에는 5대 비전, 10대 정책 방향, 40개 중점 추진 과제가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학력 책임교육 △진로교육 강화 △교육복지 확대 △안전·돌봄 체계 강화 △지역소멸 대응 교육 △AI 미래교육 체계 구축 △교육과정 다양화·특성화·지역화 △교육공동체 회복 △청렴 교육 △지역 교육자치 실현 등이 포함됐다.

특히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생애주기별 교육비 지원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AI 교육,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정책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천 예비후보는 "기초학력 책임제와 맞춤형 진로 설계가 자리 잡으면 아이들은 웃고 학부모는 안심하는 전북교육의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며 "교육이 변하면 전북이 변한다는 믿음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해 전북형 책임교육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선민 기자



전주교육지원청은 2일부터 11월 5일까지 관내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도서관 체험 프로그램 '책누리 도서관 여행'을 추진한다. (사진=전주교육지원청 제공)

## 전주 중·고교 특수학급 학생들의 특별한 도서관 체험

전주교육지원청, '책누리 도서관 여행' 11월까지 12회 걸쳐 진행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이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참여 기회 확대에 나선다.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채선영)은 관내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도서관 체험 프로그램 '책누리 도서관 여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주시와 연계해 학생들이 지역 내 다양한 도서관을 직접 탐방하며 책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책누리 도서관 여행'은 2일부터 11

월 5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12회에 걸쳐 운영되며, 전주지역 21개 학교에서 학생 179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진행된다. 오전에는 아중호수도서관 또는 시립도서관 꽃심을 방문해 도서관 이용 방법을 익히고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갖는다.

오후에는 연화정 도서관으로 이동해 연화루에서 그림책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독서와 문화 체험 활동을 이어간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이번 프로그램이 도서관을 단순한 학습 공간이 아닌 '여행'의 개념으로 접근함으로써 특수

교육대상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경험을 쌓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선영 교육장은 "학생들이 전주의 특색 있는 도서관을 직접 체험하면서 책과 문화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일상에서 활용 가능한 여가활동을 익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심신 재충전과 자기관리 능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와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 전북교육청, 행안부 데이터

기반 행정평가 '최고 등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행정안전부 주관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으며 데이터 행정 역량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전북교육청은 2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전북교육청은 △AI·데이터기반행정 리더십 및 교육 실적 △공공데이터 구축 로드맵 수립 및 이행 △중점 이행률 등 6개 지표에서 만점을 받으며 데이터 행정 역량을 인정받았다.

이번 결과는 교육 행정 전반에 데이터 분석과 활용 체계를 강화해 정책의 객관성과 과학성을 높인 성과로 평가된다. /오상근 기자



## 전북교육청, 청소년 흡연문제

대응 생활지도 역량 강화 나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청소년 흡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교 현장의 생활지도 역량 강화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2일 분청 초·중·고등학교 생활교육 담당 교사 340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학생생활교육 담당자 흡연예방교육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최근 확산하고 있는 액상형·권련형 전자담배 등 흡연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신종 담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관리와 지도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북교육청은 이를 통해 사전 예방교육과 현장 생활지도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통합 지도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연수는 한국담배규제연구센터 이성규 센터장이 강사로 나서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과 마약류 연관성 △실질적인 학생 금연지도 방안 △학교별 흡연예방교육 우수 사례 공유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 센터장은 신종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지도자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흡연 학생들이 금연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격려와 따뜻한 상담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오상근 기자

## 치사율 20% SFTS 정복 나섰다

전북대 강준구 교수팀, 백신 개발 전주기 연구 착수



치사율이 20%에 육박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지속적으로 환자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진드기 매개 인수공통감염병으로, 효과적인 치료제와 상용화된 백신이 없다는 것이 큰 위협으로 지목돼 왔다.

특히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반응 기전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아 예방을 위한 백신 개발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러한 난이도 높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백신 개발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가 전북대학교 연구공동체연구사업 강준구 교수 연구팀에서 본격화되며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강 교수팀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SFTSV) 백신 개발 및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한국연구재단,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청 등으로

부터 총 3건의 신규 연구과제를 연이어 수주하며 연구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한국연구재단의 SFTSV 비중화항체의 역할 재조명' △농림축산검역본부의 SFTS 백신 후보물질의 in vitro VIP 플랫폼 확립' △질병관리청의 '백신 플랫폼 간 면역반응 특성 비교 및 신종감염병 대응 최적 플랫폼 도출 전략 수립'으로, 각각 SFTSV 면역기전 규명부터 백신 후보물질 개발, 플랫폼 최적화 전략 수립까지 전주기적 연구를 아우르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연구팀은 기존 백신 개발에 한계로 지적돼 온 면역반응의 불확실성과 플랫폼 간 비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중화항체의 기능을 재조명하고 다양한 백신 플랫폼의 면역학적 특성을 정밀 분석하는 통합 연구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차세대 SFTS 백신 개발의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신종 감염병 대응에 적용 가능한 범용 플랫폼 구축 가능성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 공유재산 관련 법령 이해부터 사례 공유까지

전북교육청, 재산업무 담당자 실무교육 오늘까지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재산업무 담당 공무원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충남 공주시 국토정보교육원에서 2026년 상반기 재산담당공무원 맞춤형 위탁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실무 사례를 통해 재산담당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분청과 교육지원청 소속 재산업무 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지역의 이해 △부동산 등기의 이해 △공유재산 관리 △공유재산관리 제도 및 실무 △IT를 활용한 재산관리 △재산업무 현안 협의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비롯한 주요 업무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와 의견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업무 이해도를 높



이는 데 집중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재산업무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사안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갖추는 데 기대하고 있다.

최선자 재무과장은 "재산담당자들이 실무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역량을 갖춰 재산업무 수행의 완성도를 높여갈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유재산 관리의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 아동·청소년 진로·심리·복지 등 10개 분야 정보 총망라

안주교육지원청, 아동·청소년 지원 기관 안내서 발간

전북특별자치도안주교육지원청이 지역 아동·청소년 지원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안내서를 발간하며 학생 맞춤형 지원 체계 강화에 나섰다.

안주교육지원청(교육장 조영민)은 안주와 전주 지역의 아동·청소년 지원 기관 정보를 총망라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안주 아동·청소년 지원 기관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2026년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가 모든 학교와 교육청에서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학생 상황에 맞는 지원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교육취약계층 학생과 위기 학



생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위해 지역 내 가용 자원을 통합지원, 학업·진로 지원, 심리·정서 지원, 건강·안전 지원 등 10개 분야로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이 특징이다.

안내서에는 각 기관별 연락처와 지원 내용, 이용 방법 등이 상세히 수록돼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 기관을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록 범위를 안주 지역 기관에 한정한 것이 아니고 교육지원청과 지역 사회 기관은 물론 정부 각 부처의 복지서비스와 전주 지역 아동·청소년 지원 기관까지 확대해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 폭을 넓혔다.

안주교육지원청은 이를 통해 학생 개인의 상황에 맞춘 통합 지원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영민 교육장은 "안내서에는 여러 분야 기관의 지원 내용과 이용 방법을 상세히 담아 학생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손잡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실질적이고 유익한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